

승강장 무정차·불친절...시민 불편 개선의지 없나

'헬세 먹는' 광주 시내버스 교통 민원 들어다보니

한해 평균 800여건...승객 감소 속 민원은 증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운전기사 불친절 지적 많아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했지만 고질적 문제인 불친절한 서비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요금 인상 억제와 서비스 개선을 앞세워 매년 수백억~1천억원 가까운 세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시에 접수되는 버스 교통 불원민원은 지난 3년 간 평균 813건을 유지하며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13일 광주시 '광주행복1번가 바로응답-응답하라 용성씨'와 국민신문고, 시 대중교통과 등 시민 불편사례 접수 창구에 접수된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최근 3년 간 (2019-2021년 9월) 2천439건이다. 한 해 평균 813건인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869건 ▲2020년 798건 ▲올들어 지난 달 30일 현재 772건 등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승객 수가 2019년 1억2천670만여명→지난해 8천510만여명으로 4천160만여명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민원 접수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올해 기준 주요 민원 내용을 보면 승강장 무정차가 2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친절 188건 ▲승·하차 거부 148건 ▲배차 시간 미준수 32건 ▲도중하차 2건 ▲부당요금 1건 ▲기타 149건

(운전원 턱마스크 착용 등) 순으로 나타났다. 운전 기사의 불친절 관련 민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불친절 신고 건수는 103건이었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188건씩이었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하면서 발생한 민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용객들 사이에선 선진 버스 운송 서비스의 정착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승객 수는 준 반면 민원은 늘었기 때문이다.

이날 '광주행복 1번가 바로응답' 민원 사례 홈페이지에는 버스 운행 시간 지연, 하차 중 출발 등 안전 운행 무시, 버스 기사 욕설, 요금 문제 마찰, 버스 내부 환경(온도 유지) 미흡 등 다양한 민원이 올라와 있다. 또 학동 붐과 참가와 도시철도 2호선 건립 공사에 따라 일부 승강장 위치가 변경되면서 버스 운전원과 시민간의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시내버스 운송 관련 위반 사항이 객관적으로 밝혀질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불친절 민원은 증가했다"며 "노조와 시내버스모니터위원과의 소통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 버스준공영제는 지난 2006년 버스 회사의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버스 기사의 처우를 개선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도입됐다. 시가 버스 요금과 노선 등을 정하고 전체 버스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10개 시내버스 업체별로 운행 거리와 실적 등에 따라 운행비용을 정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시가 버스 회사의 손실 보전을 위해 쏟아부은 세금은 6천741억원에 달한다. /오승기기자



세방리튬배터리 광주공장 준공 13일 오후 광산구 평동2차산업단지에서 열린 '세방리튬배터리 광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과 이상용 세방그룹 회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내빈들이 준공세례모니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김익주 시의원 "광산교육청 신설 시급"

광주 광산구의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선 광산교육청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13일 제302회 임시회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가 광산구를 편입할 당시 광산교육청을 서부교육청으로 흡수·통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향후 교육 수요 증가를 염두에 두지 않은 미숙한 대처로, 당장이라도 광산교육지원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광산교육지원청이 신설돼야 할 이유는 광산구가 광주시 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2000년대부터 대

단위 택지 개발로 인구 수가 늘어나면서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서부교육지원청 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13만5천432명이다. 학교 수는 390개교, 병설유치원은 121개원"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광산구 교육 수요 증가로 교육현장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광산교육지원청을 신설한 뒤 관할 구역을 광산구로 한정한다면 시 교육청이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민형배 "한국개인정보원 광주에 신설해야"

국감질의·자료집 등 통해 설립 필요성 주장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은 13일 국정감사 질의 및 자료집 발간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관인 '한국개인정보원'의 광주 신설을 주장했다. 민 의원은 자료집에서 '한국개인정보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크게 3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 지원업무 증가를 이유로 제시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기관 수는 2017년 64개에서 2020년 218개로 3.4배 증가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 접수 건수 역시 2017년 10만5천건에서 2020년 17만7천건으로 1.7배 가량 늘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전문성 요구를 들었다. 종전에는 개인정보

호를 정보보호의 한 분야로 인식했으나, 정보 보호가 포괄하지 못하는 개인정보보호 고유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지원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한계를 내

세웠다. 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 사이버침해대응 업무, 인터넷 진흥업무 등을 주로 지원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성 축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민형배 의원은 "광주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위치해 있고, 광주 첨단 3지구에 국가 인공지능 융복합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나주에 있는 만큼, 업무 연계성이 높은 기관 및 단지와 인접성을 고려한 신설로 상호보완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장재성 시의원 "학교·사이버폭력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폭력·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해선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은 13일 시교육청 시정 질문에서 "피해 학생들이 마음 놓고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

은 '학교 폭력 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올해 초·중·고교생 응답자 중 '학교 폭력 피해·가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피해자는 1.0%로, 이는 전년보다 0.1%p 늘어난 수치다. 가해자는 0.4%로 지난해보다 0.3%p 증가했다. 장재성 의원은 "현재 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다양한 학교 폭력 관련 전담부서·전문기관의 설치 또는 기관·단체 위탁 방식으로 Wee센터 등 6곳의 상담 기관을 운영 중"이라며 "피해 학생이 해당 상담 기관에서 가해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독립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형기자

호남대 찾은 김총리 "지역대학 위기는 지역의 위기"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대학이 4차 산업혁명명 선도하고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호남대학교 미래

자동차 상상공작소를 방문,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직결되는 만큼 지역대학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대학이 중심이 되어 미래인재를 키워내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산업체가 활력을 되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

실험 실습을 위한 전용 공간인 미래자동차 상상공작소를 둘러본 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교육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하는 호남대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와 힘을 얻었다. 위기를 스스로 돌파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타 대학에도 퍼져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광주매일신문 구독QR
www.kjdaily.com

LX, 국민생활의 플랫폼이 되다

스마트 지적측량, 안전정보 제공, 스마트시티 구축에 이르기까지 LX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함께 합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 광주전남지역본부
www.lx.or.kr